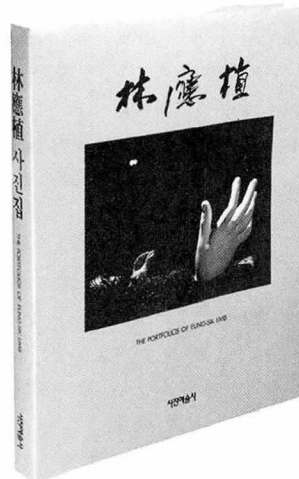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의 흔적

임응식 《임응식 사진집》



와가촌(돈암동, 1970)왼쪽, 구직(명동, 1953).

인생살이 굵어지게 마련이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일지도 모른다. 외길 인생, 그것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헤쳐왔다면 그만큼 고통스런 여정이었을 게다. 《임응식사진집》(1995, 사진예술사)에는 일생 동안 오직 사진의 길만을 걸어온 작가 임응식(86)의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집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8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등장하는 사진은 습작기에 찍은 것으로, 지계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들이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들의 모습에서 해방 전후의 시골 정서가 물씬 풍긴다. 이어 역사의식이 반영된 사진들이 등장한다. 폐허로 변한 서울 풍경, 진주하는 군인들, 그리고 고아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

의 잔혹성을 고발한다.

역사의 현장찍기와 함께 그는 우리 건축물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담아내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고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삶의 공간이었던 가옥으로 옮겨졌고, '변모하는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살아 있는 이웃의 표정을 담아낸다. 그 즈음에 찍은 <구직>은 사진계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40년 동안 찍어온 변모하는 '명동의 모습'은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찬찬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예술가의 초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도 공을 들였다. 지휘를 하고 있는 작곡가 안익태 선생,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공초 오상순 시인 등의 모습에서 예술적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뜨는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은 현대적인 감각까지 담아내고 있어 스스로 변모하려는 작가정신을 엿볼 수 있다.

《임응식사진집》은 사진 외길을 걸어온 인생 역정의 총화편이다. 《임응식 사진선집》, 《임응식사진집》(시각사), 《한국의 고건축》(광장출판사), 《풍모》 등에도 그의 예술혼이 서려 있다. 홍익대, 중앙대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는 저서로 《포토-텍스트 I·II》, 《사진현상과 작가》, 《사진사상》 등을 남겼다. 현재는 개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28호 / 1998년 1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마정미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전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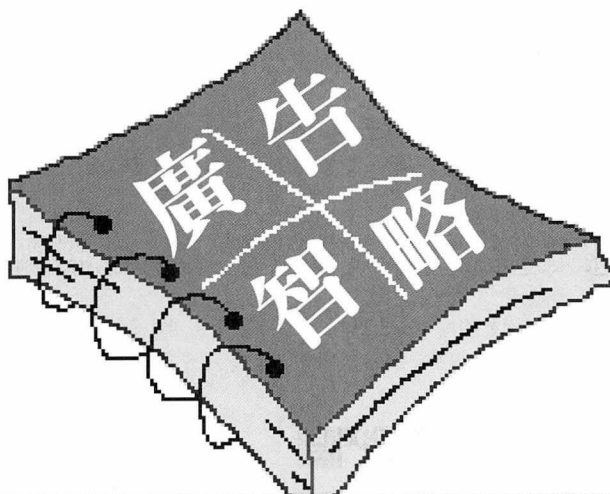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규칙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